

＝ 劉 載 興 初代油協會長에 듣는다 ＝

石油協會는 石油業界·政府·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機關이 되어야 한다

對 談 : 金 乾 治(油協·弘報室長)

1980년 大韓石油協會의 발족과 함께 初代會長으로 재임하였던 劉載興 前油公社長 一.

지난 해 12월, 油公의 民營化와 함께 石油業界를 떠난 후, 일단 모든 公職生活을 청산하고 조용히 閑居하고 있으나 석유업계에 대한 關心과 熱意는 변함이 없다.

問=안녕하십니까. 劉회장님이 저희 石油業界를 떠나신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와 오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동안 별다른 없으셨는지요.

答=아시다시피 내가 解放後 해외에 가서 돌아와 작년 12월 油公社長을 그만둘 때까지 쉰 적이 없이 쫓 일해 왔어요. 올해가 내 나이 환갑인데, 그 동안 너무 급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모처럼 時間的 여유를 갖게 되었으니까 그 동안 내가 살아온 人生을 회고하고 또 자신의 환경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을 安定시키고, 그 동안 멀리 했던 책도 읽고, 보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도 하고, 또 친했던 벗들과 만나 消息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

는 사이에 제법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個人的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새는 몸도 건강하고, 家族도 잘 있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問=劉會長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石油協會는 오는 9월 29일로 創立 1周年을 맞게 됩니다. 協會 장립에 관여하셨고, 또 初代會長職을 맡아 초창기에 여러 모로 애쓰신 劉회장의 감회도 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그 설립배경부터 얘기해 주시지요.

答=작년 9월에 大韓石油協會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역사가 20년에 가깝고, 精油會社만 해도 5社에 이르고 있지만, 業

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할 기회도 없었고 또 구심체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없었어요. 그 큰 理由의 하나는 그 동안 우리나라 精油會社들이 너무 메이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주요 석유문제는 정부가 직접 처리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精油業界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精油社가 5개로 늘어나고, 또 石油危機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세부적인 부문에서 터치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어요. 또 油公의 50% 持分을 갖고 있던 결파가 손을 떼고 철수하게 되자 이 기회에 韓國의 동업자끼리 모여서 石油問題를 토의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가며, 국민을 위한 精油會社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정유회사들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 속에서 協會가 창립된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石油제품가격문제

였어요. 정부가 너무 가격문제에 개입하여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이런 油價문제는 정유업체 스스로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거쳐 어느정도 決定된 案을 갖고, 정부와 교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政府의 방침이 이런 종류의 협회나 기구가 너무 많다고 하여 유사단체나 기구를 통폐합해 나가던 상황이었지만, 石油協會만은 새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原油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을 위한 석유업체의 자세를 가다듬는 하나의 계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취지나 목적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問=協會의 발족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사이에는 다소 의견의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答=업계측의 기본방침은 協會는 정유회사들이 主体가 되는 것이며, 정부의 간섭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政府의 입장은 石油문제는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업계에 全的으로 맡길 경우, 업계측의 의견만으로는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문제도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정부측도 인정할 수 있는 人員으로 협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또 政府가 특히 協會에 기대한 것은 석유문제에 관여하는 정부공무원들은 앞으로 자꾸 바뀌지만, 協會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므로 보다 有能한 人材와 두뇌들을 모아 적어도 石油協會에서 나오는 의견은 명실공히 大韓民國에서 石油문제에 관한 한 가장 권위가 있는 발언이 되도록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의견에는 저희 業界로서도 同感이어서 国内 人力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신뢰받는 協會를 만들자는데에 뜻을 같이 했었지요.

協會역사가 日淺하여 아직 이런 기대와 목적에 충분히 부응해 나가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와 같은 정부와 업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協會의 창립목적이 石



劉載興 씨

油문제에 있으므로 協會 스스로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또 協會가 발전하여 정부나 업계를 리드해 나가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問=劉會長님이 石油業界를 떠나신후 石油情勢도 많이 변했고, 또 최근 石油業界는 유례없는 不況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觀點은 어떠한지…

答=내가 듣기로는 요즘 精油会社들의 가동율이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業界가 지금 매우 苦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내 나이 환갑인데, 이제 모처럼 시간적 餘裕를 갖게 되었으니까……”

劉載興씨 略歷

- 1921年 8月3日生(서울)
- 1941年: 日本陸軍士官學校 卒業
- 1946年: 軍事英語學校 卒業
- 1950年 5月: 第7師團長
- 1950年 6月: 第2師團長
- 1951年 1月: 第3軍團長
- 1952年: 陸軍中將
- 1953年 2月: 陸軍參謀次長
- 1957年 5月: 合同參謀會議長
- 1959年 2月: 第1軍司令官
- 1960年 7月: 陸備役轉任(陸軍中將)
- 1960年 8月: 駐泰國大使
- 1963年 8月: 駐스웨덴大使
- 1967年 9月: 駐이탈리아大使
- 1970年 9月: 大統領特別安保担当 補佐官
- 1971年 8月: 國防部長官
- 1974年 2月: 大韓石油公社社長

賞 勳

- 銀星太極武功勳章
- 太極武功勳章
- 一等勳政勳章(靑條素星)
- 修交勳章光化章
- 修交勳章弘仁章
- 金星乙支武功勳章
- 金星忠武武功勳章
- 美레즈勳章
- 美銅星勳章
- 大統領表彰

또 石油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소비절약 때문인지, 또는 不況으로 인한 소비감소때문인지는 분석을 해야할 문제이겠지만, 정유업체의 최대 사명은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石油를 충분히, 그리고 싸값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배 현재는 재고도 많고, 공급도 충분하므로 이런 面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石油業界 내부를 볼 때는 赤字가 누적되고 있어요. 특히 換差損, 판매부진, 유전스기간의 연장, 先進國金利의 상승등으로 정유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지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油公에 제임할 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油公의 신용은 대단했습니다. 일시적인 결손은 있었지만, 언제나 그 결손을 즉시 회복하여 국제적인 公信力을 유지했습니다. 정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예요. 국가경제의 기둥인 정유업체가 赤字누적으로 公信力을 상실하게 될 경우, 韓國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 밖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問題는 속히 그 真相을 국민에

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며, 또 정부측의 지원을 얻어 정유업계의 경영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동시에 業界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것은 업자 자신이 운영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高金利의 유전스는 되도록 줄여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 업계가 유전스기간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赤字를 국민에게 전가시킬 경우, 국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業界로서는 그런 面을 고려하여 운영면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올바른 方向을 잡

이해와 설득을 하고, 또 걸프측에 붙어 중간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2천여명의 직원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人和團結할 수 있도록 머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걸프측이 다소 오해하기도 했지만, 점차 社長의 의도를 이해하고, 걸프측이 취한 방법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중간에서 우습게 굴던 韓國사람들도 자숙하게 되었어요.

일부에서는 걸프와의 合作관계를 가리켜 韓國사람이 왜 外國사람의 종노릇을 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

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一念으로 충성을 다바치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生活는 성스럽고 신성한 생활이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국민들은 왜 軍人을 신뢰하고 존경합니까? 군인들이 그런 一念으로 피땀흘려 국토를 지켜 주니까 아끼고 사랑을 받게 아닙니까.

저도 오로지 그런 精神으로 일해 왔고 살아 왔다는 데에서 저로서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6.25動亂의 國難중에 公산군과 싸워 나라를 지킨 것은 두고 두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명예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60년대는 해외에서 大使로 일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해외에서 세계속의 韓國을 보고 느꼈습니다. 韓國이 앞으로 살아 나가려면 역시 세계속에서 조화하고 협력하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나라만 잘났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意味에서 世界속의 韓國을 심기 위해 힘껏 일해 왔습니다.

泰國에서 만 3년, 스웨덴에서 4년, 이탈리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태극기를 대사관에 걸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韓國을 인식시키는데 최대의 努力을 했다는데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해외의 교포들과 어울려 大韓民國의 尊正을 교포들에게 베풀며 친밀하게 지낸 일, 또 해외의 輸出전선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일 등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70년대 초에 國防部長官에 재임하면서 자주국방의 사명인수를 위해 장비 현대화와 방위산업에 처음 착수했고, 예비군戰力강화를 추진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油公에 와서는 국민경제에 기초에너지인 石油를 공급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정부를 볼 수 있었고, 국민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敎訓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政府가 잘

“類似団体나 機構를 통·폐합할 때 석유협회만 새로 發足시켜야 했던것은……”

아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原油를 비축하는 문제는 현재 精油会社들이 역경에 처해 있으므로 그 문제는 국가로 돌리고, 정유회사의 운영자금부담을 줄여 준다든지 하는 方法을 고려해서 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問=劉會長님이 油公社長으로 재임하신 기간은 걸프와의 합작지류 시대였습니다. 운영면에서 고충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答=경영면에서 볼때, 걸프는 가장 어드밴스드 經營方式을 도입 하여 합리적, 경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油公직원들도 近代的 經營技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面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人事문제였어요. 英語를 잘 하고, 美國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걸프사람의 눈에 들어 승진도 빨리 되고 좋은 자리에도 가는데, 英語를 잘 못하고 美國사람과 별로 접촉할 기회가 없이 묵묵히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자꾸 뒤로 처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人事운영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 사람엔 社長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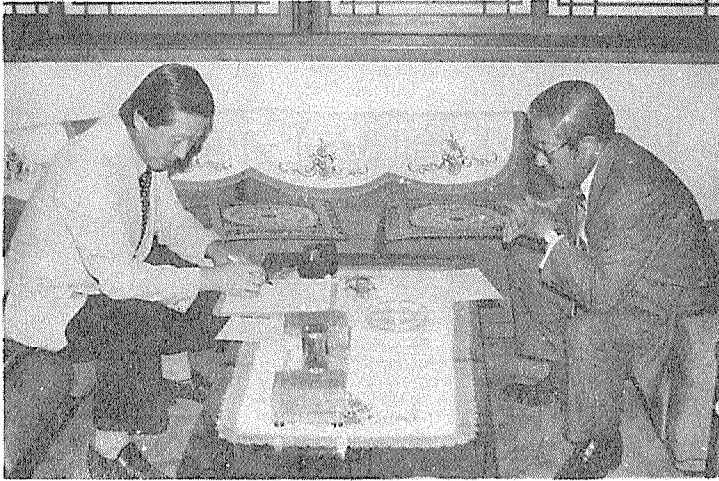
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企業이라는 것은 반드시 民族資本만으로 영위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세계의 기업들이 多國籍化해가는 추세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合作会社도 하나의 큰 기업이므로 합작회사내에서 韓國人으로서 걸어야 할 신조랄까, 길을 걸으면서 올바른 方向으로 해나가는 것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걸프가 자기네의 이해타산에 너무 밝아서 어떤 面에서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없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제동을 걸며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企業의 운영면에서 볼때 걸프는 合格點數를 줄 수 있는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問=劉회장님이 걸어 오신 생애를 보면, 50年代의 軍生活, 60年代의 외교관 생활, 그리고 70년대의 국방부장관과 油公사장으로서 大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의 매듭과 연륜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있다면…

答=軍人は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6.25動亂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國軍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키워 國土



앞 載興 前會長(右)과 對談하는 金 乾 洽 油協總보실장(左)

“協會 스스로가 國民生活과 國家경제발전에 도
움을 주며 業界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

난 것도 아니고 사업가가 잘난 것도 아니라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연계 되었어요. 정부는 기업을 도와 주고, 또 사업가는 사업을 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問=劉會長님은 제1차 석유위기가 고조되던 74년 2월부터 油公社長으로 취임하여 어려운 시기에 石油를 공급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石油企業人으로 수고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요.

答=그 때가 제 1차 오일 쇼크때인 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 理由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기업들도 확대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투자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룬 상태에서 石油危機를 맞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石油값이 10배로 올라갔으므로 상당히 당황했죠. 다행히 사업

규모도 어느 정도 작고, 밸런스도 맞는 상태였으므로 生産부족도 없었고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問=평소에 골프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를 하게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答=골프는 첫째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을 집중시키는데에 골프처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問=앞으로의 생애설계는?

答=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얻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이나 의견을 국민에게 밝히고 싶어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저것은 나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式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로서는 나머지 人生을 보내는데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問=끝으로 石油業界나 石油協會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答=앞에서도 얘기했읍니다만, 精油 會社들은 기초에너지인 石油를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物量을, 安定된 가격으로 適期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례 허식 추방하여 알찬 살림 꾸려가자